

끊어지지 않는 언약

본문 : 창세기 24장 1-27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¹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²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넓적다리뼈 아래에 놓어라.

³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않고,

⁴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⁵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⁶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⁷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 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⁸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⁹ 그래서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아래 손을 놓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¹⁰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열 마리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종은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북서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¹¹ 종은 성 밖의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¹²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넛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¹³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길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¹⁴ 제가 그 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넛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 15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성에서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브두엘의 딸입니다. 브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그의 아내인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 16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이며, 남자와 가까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 17 그 때에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 18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마시세요" 하며 급히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종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 19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 20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쏟아 부은 다음,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와 모든 낙타들이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 21 종은 여호와께서 이번 여행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리브가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 보았습니다.
- 22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종은 리브가에게 반 세겔쯤 나가는 코걸이 하나와 십 세겔쯤 나가는 금팔찌 한 쌍을 주었습니다.
- 23 그러면서 종이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떤 분의 따님이신지요? 아가씨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이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는지요?"
- 24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 브두엘입니다."
- 25 리브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여물도 있고, 여러분이 하룻밤 묵어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 26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 27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주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제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2.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엘리에셀)에게 믿음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향 친척의 집에서 데려올 것을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3.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말고 고향 친척의 집에서 택해야 합니다. 둘째, 혹시 여인이 가나안으로 오기를 거절해도 이삭은 가나안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4. 만약 여인이 가나안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종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5.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6.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

함의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주인 아들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여인 중 한 명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여인이 ‘마시세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답한다면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7. 당시의 풍습은 여자가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가족과 가축에게 필요한 물을 길었습니다. 풍습을 따라 종은 손님에게 친절하고 잘 대접하는 성품을 가진 여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¹⁾
8. 종은 기도한대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종이 물을 구하니 기도한대로 여인이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9. 종은 기쁜 마음으로 여인이 어느 집의 딸이고,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고,²⁾ 묵어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0. 종은 여인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1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이 되어야 합니다.
12.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13. 우리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대대로 언약이 이어져야 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1.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나요?
2.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가나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나요?
3. 우리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법칙을 만들어봅시다.

- 1)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잘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소돔으로 가는 사람들을 대접했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합니다.
- 2) 브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입니다. 브두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0-24절 참조)

